

“해남군 인구정책의 모든 것” 한눈에 담은 책자 발간

인구·청년·작은학교살리기·사회적경제기업 등 분야별 책자 발간 배포...“살기좋은 해남 만들기”

해남군이 군 인구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분야별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한눈에 보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모음집,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를 위한 브라보 해남, 사회적경제장터 등 각 분야별 사업을 자세히 설명한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는 각 읍면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해남군 디지털행정자료실에 등록해 각종 민원 수요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인구정책’은 해남군 인구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해 담고 있다.

주거지원과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그리고 다문화와 청년, 여성, 일자리 등 총 16개 분야 153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특히 알아두면 유익한 복지정책으로 놓여진 공익수당, 군민 안전 보험, 해남사랑 상품권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 고희사랑 기부제 등을 수록했다.

‘청년지원 정책모음’은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자세하게 실었다.

결혼·출산 3건, 주거·금융 8건, 취업·창업 16건, 농·축·어업 14건, 문화·복지 6건 등 47건의 정책이 담겼다. 군은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최대 300만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등과 함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브라보 해남’은 작은학교 살리기 등 해남군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통한 인구 증대 정책을 다루고 있다.

해남군은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복일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를 시작으로 현산면, 계곡면에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확산·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창업스쿨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상품을 운영한다. 해남군은 2022년 말 기준 11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적경제장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과 함께 제품 목록 등을 수록해 기업 활동

및 판로 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경제 활성화 등 인구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책자 발간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 장동면, ‘또박또박 한글방’ 입학식 개최

거동불편 어르신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실

장흥군 장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성흠, 문수연)는 27일 장동면 진곡경로당에서 ‘또박또박 한글방’ 입학식을 개최했다.

‘또박또박 한글방’은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년 (제)장흥군 나눔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까지 매주 2회 운영된다.

배움의 기회가 부족하여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색칠놀이를 통한 색채감각, 창의력 단련, 기억력 상승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강사가 대상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학식에는 한글방 참여자 13명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변영희장 등 장동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입학생들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 교재, 가방, 학용품세트 등의 입학선물을 전달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도 주관 읍면동 행정 평가서 4년 연속 수상

완도군 고금면이 지난 23일 전라남도 주관 ‘2022년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읍면동 현장 행정 평가는 문화유산, 관광시설, 복지, 생활환경 등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전남도 내 297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타 우수 사례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와 효과성, 연계성,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1차 서면심사에서 10개 읍면동을 선정 후 2차 발표가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금면은 행정과 주민은 물론 유관기관 연계로 지역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등 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 체계 확립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고추장 담그기 사업, 취약 가구 이불 빨래 사업, 방충망 교체 사업,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등 이웃 사랑 실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폐가 철거, 독거노인 디딤 계산 설치, 고금면 주간 소식지 발간 등 촘촘한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 점도 인정받았다.

한편, 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라남도 주관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교육 실시

진도군이 모든 공무원에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난 27일(월)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해킹 등 보안사고 예방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권현준 전문 강사를 초청, “지키면 프라이빗! 놔두면 프라이빗!”의 주제로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개인

정보 유출 시 대응 절차 등 교육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진도군에서 수집·처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업무 수행 중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 애플망고 수확시기 확 당졌다

초축성재배 성공...수확 시기 두 세달 빨라지고 가격은 3배 높아

강진에서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애플망고’가 다른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수확기를 앞당기는 ‘초축성재배’에 성공해 주목을 받는다.

강진군은 2013년부터 망고를 도입, 시범 재배와 연구를 통해 조기 수확에 대한 기술을 배양해오다 최근 조기 수확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진읍에서 4000㎡의 애플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환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장에서 처음 망고를 출하하면서 3kg 한 박스당 30만 원이 넘는 단가를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수확은 올해 대한민국 육지부 최초 수확으로 6월 수확 평균 가격 10만 원(3kg)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가격을 받은 셈이다.

특히 맛과 품질 면에서 다른 지역 망고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진 애플망고의 경우 20~22브릭스(Brix·과실 의당도 단위)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금쯤 국내산 애플망고 가격이 없는 시기여서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망고는 6~7



월 사이에 출하되는데, 주산지인 제주도부터 공급량이 몰려들어 해당 기간에는 고가 판매가 어렵고, 여름철 고온으로 작엽이 힘든 점도 도전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애플망고의 초축성재배는 냉난방 히트펌프를 활용, 여름 저온처리와 겨울 가온처리를 병행해 꽃을 빨리 피게 만드는 기술을 접목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열대과수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과수 농업은 판매나 마케팅, 재배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며 “절점 따뜻한 지는 기후를 경쟁력 삼아, 애플망고 등 아열대과수 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